

불교계는 지금 재능보시 열풍

‘재능’ 나누면 함께 사는 ‘기쁨’ 두 배

보시란 널리 베푸는 뜻이다. 대부분은 일정한 금전이나 물품을 내놓는 것을 보시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시도 세월 따라 문화 따라 변하는 법. 재능 기부가 대세인 요즘 집 안에서 도 재능 보시의 바람이 불고 있다. 봉축을 맞아 문화 출판 의료 상담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널리 베풀며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불자들이 늘고 있다. 어둠을 밝히는 연등처럼 세상 곳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비추는 그들의 모습을 소개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문화·예술’로 감동 나눠줘

강형진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강형진 단장은 13년간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지만 월급을 받지 않는다. 자비와 소망의 오케스트라라는 그들의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음성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10여년 전부터 사찰서 소개받은 학생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보람을 준 김지선 제자는 시각장애 학생으로 국내 주요 콩쿨에서 수상하면서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강 단장은 “가라진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냈을 때는 정말 보람을 느낀다. 대중들에게 음악으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며 법열감을 피력했다.

강재욱 불교 사진작가는 제 3세계를 다니며 찍은 사진을 유니세프, 코이카 등에 보시해 왔다.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한 그는 동티모르의 폐자재로 만든 장난감을 형상화한 작품을 제작해 국제구호단체 더프라이즈 등의 아트페어 프로젝트 등에 기부하고 있다. 그는 또한 커피 드리퍼를 도자기로 제작해 제 3세계 국가 아이들의 공정무역을 돕는 등 다양

한 방법의 재능보시를 펼치고 있다. 강 씨는 “빈곤국 어린이들이 미술을 통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기향 한성대 교수는 지난해 불교여성광장 건립 기금 모금 문화제에서 ‘춤추는 단청’ 무료 의상쇼를 펼쳤다. 또한 이 교수는 해외 불교 행사에서도 다수의 무료 의상쇼를 펼친 바 있다. 아베리타양상을 이끌고 있는 서수일 단장은 9년째 군법당·노인요양원·병원·소의 사찰 등을 찾아다니며 음성공양을 펼치고 있다.

방송인 김병조씨도 JTS 거리모금 행사 등에서 4년간 무료 MC로 출연중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뮤지컬 배우인 아들 김형주(소리극단 부대표) 씨와 더불어 MC로 함께 출연해 훈훈한 부자의 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교도소에서 10년째 그림 지도를 펼치고 있는 이인자 경기대 명예교수 >사찰 49개에서 108회 살포미 공연을 하고 있는 관무용단 이영민 단장 >사찰 로고 디자인 보시를 펼치고 있는 김민지(MIM대표) 디자이너 >선방과 사찰 불사에 그림을 보시하는 선화가 동성 스님 >불교계 행사에 무료로 공연중인 석의신 해금 연주자 등이 재능보시를 펼치는 문화 예술인이다.

불서 범공양과 인세 보시

40여년간 불서를 집필해 사찰 및 신학단체에 보급해 온 불자 원로 영화인 한갑진 회장(한진흥업)의 무주상 보시는 유명하다. 그는 1973년(알기쉬운 불교)을 시작으로, (인도와 불교)(부처님의 생애) 등 직접 저술한 책들을 사찰과 군법당에 무주상 보시해왔다. 또한 그는 10년간에 걸쳐 번역한 <아함경> 4권과 <새 천년 해적 갈 불교>를 무료 배포하기도 했다.

인세기부도 활발하다. 드라마 작가 노희경 씨는 출판 계약 시작 단계부터 기부를 전제로 한다. 소설 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인세 전액을 기부하며, 대본집인 <거짓말> (그들이 사는 세상) <같이 솔로> <빠담빠담>과 에세이집 <지금 사랑

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등도 인세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시하고 있다.

불문학자이자 번역가인 민희식 교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책 발간에 저작권료를 기부했다. 일반책보다 제작비용이 훨씬 많은 점자책의 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춰 시각장애인들이 좀더 쉽게 책을 접하도록 고자 하는 배려다.

이밖에도 >동국대 역경위원을 지낸 박경훈 씨는 <부처님의 생애>인세를 불서발전기금으로 무주상 보시했으며 >해남 미항사 주지 금강 스님은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의 인세를 조계종 교무원발전 기금으로 회사했다. 또한 월 1월부터 불교 잡지 <불광>에 원고를 기고하고 있는 조계종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매달 원고료를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에 보시하고 있다.



강형진 단장

류재환 교수

노희경 작가

황수경 교수

방송인 김병조 씨

강형진 단장 13년 오케스트라 이끌어
노희경 작가 출판한 서적 인세 기부해
류재환 교수 국내외 의료봉사 활발
황수경 교수 군부대에서 명상 상담 봉사

고민상담으로 ‘마음병’ 해결

황수경 동국대 명상상담학과 교수는 10여년간 교도소와 군부대 학교(청소년 상담) 등을 다니며 무료 상담을 해왔다.

특히 그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최전방 군부대 장병들을 찾아가 법회를 열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준다. 지장보살의 서원을 가장 큰 원력으로 삼고 있는 그는 교도소 방문 상담을 통해 중생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기도 하다. 불교상담전문가 이경애 씨의 활약도 눈에 띈다. 오랜 시간 학교에서 상담교사로 재직해온 그는 정년퇴직을 하고 모든 걸 불교에 회향하겠다고 다짐했다. 2010년부터 불교상담개발원의 강의를 물론 내방자들의 상담을 맡고 있는 그는 불교상담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한다. 이밖에도 >20년간 무료 가족 상담을 진행하는 정도회 재법사 >군법당 등에서 무료 상담을 펼치고 있는 (주)울리브나무 성부현 대표 등이 있다.

문화해설로 역사 지혜 전달

전문교사 리수실 씨는 10여년 간 낙산사 문화유산해설사로 봉사중이다. 그는 불교적 시선으로 문화재를 알려주는 것과 더불어 관광객들에게 불법의 지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부 이승철 주임은 고궁을 안내하는 궁궐 지킴이로 6년간 활동해왔다. 월 1회 창경궁 덕수궁 등에서 궁궐 해설을 펼치고 있는 그는 앞으로 사찰 문화유산해설사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한다.

무료 진료로 병 고쳐 줘

류재환 경희대의료원 동서의학과 교수(전국병원불자연합회 회장)는 해외 및 국내에서 20여년간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인도 티베트 라오스 등 해외봉사는 물론 국내 도서 산간 지역 등에 의료 소외계층 진료를 맡고 있다. 앞으로는 8월 백령도를 시작으로 국내 섬주민들을 위한 의료 봉사도 할 생각이다.

김진섭 강원도 철원 김화치과 원장(전국병원불자연합회 고문)은 10년째 국내외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치과 무료진료를 한다. 또한 이연희 불교의료봉사단 반갑다 연우아 이주민치과진료팀장 역시 국내외 불교 의료봉사의 대표주자다. 20여년간 군부대를 찾아 민간치료를 펼치는 무구 스님(민간요법 성훈 따주기 명예회장)은 따주기 무료강연을 통해 대중들에게 따주기 민간요법을 전해주고 있다.

www.jawonet.com

희담석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2인용

전자파 걱정 없는 희담석 온열매트로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희담석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올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온열매트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인체 어디서든 수맥로부터 고객님의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 온열매트
● 1인용 : 58만원 ● 2인용 : 85만원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불(희담석 60% + 제올라이트 40%)
· 열 선 : 실리콘 테프론 무자재 열선
(전자기장으로부터 안전한 열선으로 고가의 침대에서만 사용하는 열선)

희담석 방석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희담석 방석

사용방법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고급신형
● 50,000원 (색상 : 황토색)
(사이즈 450mmx450mm)

희담석 염주목걸이

명상과 함께 하는 -
희담석 염주목걸이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수행하시는 스님 및 불자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 목의 뻣뻣함을 느끼시는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셀러리엔

합정주 35,900원 - 할인가 30,400원
염주목걸이+합정주 SET - 84,000원

정가 66,000원
↓
할인가 56,000원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원동 178-4호 금강빌딩 B103호
TEL. 02(3476-2335) FAX. 02(3476-2925)

초심과 발심으로... 불교학교 운영 어렵지 않아요.

제49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방학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여름불교학교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지식을 체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습회는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하는 첫 번째 마음가짐인 초심으로 불교학교와 법회를 운영하여, 어린이·청소년포교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도자들에게 용기와 응원을 주는 자리로 1박 2일 동안 실제 사찰에서 시행되는 불교학교 일정으로 직접 체득하실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함께하시어 좋은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2년 6월 9일(토) 오후 2시 ~ 10일(일) 오후 1시 (1박 2일 간)
- 장 소 : 신홍사 청소년 수련원 (경기도 화성시 소재)
- 참가대상 : 불교학교를 준비하시는 법회 지도자, 스님, 포교사, 템플스테이 실무자 등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 (6월 5일까지 선착순 150명)
- 프로그램 : 사찰 예절(습의), Ice breaking, Team building, 우리문화의 우수성 신나는 찬불가운동과 레크리덴스, 사물처럼, 캠프파이어의 실제, 발우공양 하는 법, 천연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불교학교 놀이의 실제 등
- 강 사 : 성일스님(신홍사청소년수련원 원장), 장현재(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교육원장), 김용숙(한국의 정신과 문화 이사), 김정윤(불교레크리에이션 교육분과장), 최태규(아람레크리에이션기획 대표), 이수진(국제공예문화 총연합회 전문 강사), 진성철(개비 이벤트 대표)
- 참가비 : 사전접수 (6/5일까지) 당일접수 비 고

60,000원	70,000원	- 분회 후원회원 무료 - 제주도 해외, 군중 30,000원 - 서울(단체별 10인 이상 접수 시 10% 할인) - 교통비 : 조계사 앞 → 신홍사 왕복 20,000원 (사전 접수 필수)
---------	---------	---

- 입금계좌 : 국민 610301-04-132532 / 농협 053-01-267940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접수된 참가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강습회 후 교재와 자료 발송)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흰 티셔츠, 양말, 개인 물 컵
- 접 수 : 이메일(burec@daum.net), 팩스 (02-738-7863) 접수
※ 신청서는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burec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38-7860, 739-4967

스마트하게 신청한다
(QR코드 신청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도경